

구로 공동주택 공시價 22.48% 급등

국토부 “집값 과열 인상 반영” 14년만에 최대... 서울 19.91%

공시가 현실화율 70.2%...보유세·건보료 등 부담 늘듯
구로 공시가 9억 초과 1,914가구... 서울 41만3000가구

올해 구로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22.48% 올라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전망이다. 전국 평균은 19.08%를 기록해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22.7%)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9.91%가 올랐으며, 지난해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은 무려 70.68%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전국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에 대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해 지난 2007년 22.7%에 이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5.98%, 2019년에는 5.23% 상승했다. 구로구는 지난해는 10.84% 올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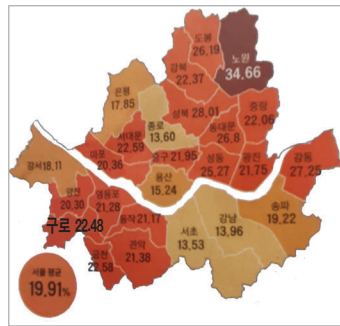
구로구 인근 양천 20.30%, 금천 22.58%, 영등포 21.28%, 관악구 21.38%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말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 방안에 따라 지난해 69.0%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지난해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관내에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9억 이상 공동주택이 570여 가구에서 올해 1,914가구로 3배 이상 폭



증해 증부세 부담 가구가 대폭 늘어 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신도림동 소재 공동주택으로 집계됐다. <채홍길 기자> <기사 2면으로 계속>

서울 서남권 '안양천명소화' 경기지역 확대

광명·군포·의왕·안양 지역간담회 개최... 안양천 각종 사업 연계

구로구가 지난 15일 경기권역(광명·군포·의왕·안양) 안양천 고도화사업 간담회에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안양천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양천명소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권역 간담회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경기지역까지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경기권역 안양천 고도화사업 간담회는 이성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한대희 군포시

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명복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별 안양천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서울 서남권 안양천명소화 사업 업무협약을 제안하고 추진한 이성 구청장이 대표로 참석해 서울권역 안양천명소화 사업의 경기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안양천명소화 사업’은 자치구 경계를 뛰어넘는 안양천 종합관리 계획으로 생태복원 연속성 유지 등 구로·금천·영등포·양천구 사업 상호연계 추진, 안양천 내 특정 시설의 과다한 중복 설치 자제, 안양천 각종 시설 공유, 안양천 50리 물빛 장밋길 조성, 산책로, 둔치 등의 연속성 확보, 위해식물 합동조사 및 제거, 연 1회 이상 합동회의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지방 하천으로 나뉘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안양천의 각종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안양천 50리 물빛 장미길 사업을 경기지역까지 확장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수영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치구를 넘어 경기지역까지 아우르는 안양천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힐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코로나19 검사 기나긴 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 120명을 기록한 17일 오전 구로구가 구로역 광장에 설치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 근로자 등 검사를 받기 위해 광장을 둘러싼 채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방역 관계자는 “요즘 외국인 근로자 등 하루 평균 1천200여명이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촬영>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방역소득 완벽!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4월 7일 수요일

기초소득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

투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시장 보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7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4월 2일(금)~4월 3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하실 때 꼭 지켜주세요

- 신변중
반드시 지참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 방역수칙 지키며
투표하기

선거권 연령: 18세 이상 (2003. 4. 8. 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

구로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19~24일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조례안 등 심사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99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조미향)를 열어 제30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전심사와 총 1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종합 심사가 이어진다. 임시회 기간 내에 논의된 안전들은 오는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제출된 안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서울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최속자 의원) ▲서울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영곤 의원) ▲서울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평길 의원) ▲서울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 ▲서울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서울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정형주 의원)이며, 그 외 안전으로는 ▲서울시 구로구 음부즈맨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신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예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푸르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해피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건으로, 총 15건의 안전을 처리한다.

(김유권 기자)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복합개발 추진”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구로 방문 공약 발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구로 철도차량기지에서 구로지역 공약을 밝히는 ‘구로구 대전환, 합시다 박영선!’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박영선 후보가(오른쪽 두 번째) 철도기기창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 후보 왼쪽은 윤건영 구로을 국회의원)

드는 한편,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친환경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교통 불평등 해결을 위한 항동-고척선(신구로선)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고척동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7일 오후 구로 철도차량기지에서 지역 공약을 밝히는 <구로구 대전환, 합시다 박영선!> 행사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구로는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의 전진기지였고, 지금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디지털산업의 메카이며 교통의 요충지”라며 “구로가 키워준 정치인 박영선이 이제 서울시장이 되어 구로의 DNA를 혁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 창업·일자리 대전환을 위해 G밸리를 중심으로 게임산업 및 구독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는 시내 가운데 위치해 있어, 서울시내 주택공급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절차와 협상을 조속히 끝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래되고 불편하던 구로역을 전면 현대화하고 출입구를 신설해 안전하고 쾌적한 역사를 만

일대에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한편, KBS송신소 부지에 복합문화타운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후보는 G밸리 넷마블 신사옥을 방문해 “넷마블 신사옥은 꿈이 현실이 되는 우리의 의지와 도전정신의 상징”이라며 “개천의 용이 드디어 G타워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윤건영 국회의원(구로을), 강선우 의원(수행실장), 김한규 대변인, 그리고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 등이 함께 했다. (채홍길 기자)

박영선 후보, 8곳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7일 열린민주당 김진에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양당의 권리·의결당원과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는 박영선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항동 구로자원순환센터 화재현장 방문

피해 상황 점검, 폐기물 수거 등 대응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주문

구로구의회가 지난 16일 오후 박동웅 의장,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 노경숙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각 소속 위원들이 항동 구로자원순환센터 화재현장을 방문, 화재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2일 밤 11시 45분경 항동 구로자원순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와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합동으로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재발방지와 신속한 화재수습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현장에는 박동웅 의장도 함께 했다.

먼저 의원들은 구청 청소행정과 장으로부터 화재관련 전반사항 및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피해복구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차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집행부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구로구의회가 지난 16일 오후 박동웅 의장,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 노경숙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각 소속 위원들이 항동 구로자원순환센터 화재현장을 방문, 화재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시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1층 대형폐기물 적환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소장의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철저한 화재원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고 박동웅 의장은 “신속한 화재 수습이 이뤄지고 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주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은 “복구 기간 동안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 비상수거 처리 방안과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노경숙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은 “지역 내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이니만큼 시설근로자에게 화재와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 공동주택 공시價 22.48% 급등

<1면에서 계속>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

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 8000호다. 서울에서는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나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

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중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지난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되고 있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정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테고리 구로오늘신문		
회장: 윤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2011년 補選 박원순 후보, 나경원 후보에 7.19%차 승리

역대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18일 정도 남았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단일후보를 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치러졌던 서울시장 선거의 출마 후보 및 지지율과 당선자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역대 선거 중 오세훈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율 당선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는 민선 4기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다. 오세훈 후보는 61.05%를 얻어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27.31%)보다 무려 33.74%를 더 얻어서 당선됐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 중에 가장 적은 후보가 나왔던 선거는 민선 5기 보궐 선거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서 사직을 한 후에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맞붙었다. 박원순 후보는 53.40%를 얻어 나경원 후보(46.21%) 7.19% 차로 당선의 영예를 얻었다.

나경원 후보는 이번 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의 공전 경쟁에서 탈락했다. 아이러니하게 민선 5기에 사직을 했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후보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안철수 후보 통상 3번째 도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후보는 이번 제7대 보궐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통상 3번째 도전이 된다. 보궐 선거는 민선 5기 보궐 선거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첫 번째 민선 5기로 출마를 했으나 사실상 야당인 박원순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마쳤다. 두 번째는 민선 7기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섰으나 19.55%를 얻어 2위인 김문수 후보(23.34%)보다 3.79%가 적은 3위를 하는 것으로 낙마했다.

◆민선 1기(1995. 7. 1 ~ 1998. 6. 30)

1995년 6월 27일에 치러진 민선 1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노태우 정부에서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민주자유당 정원식 후보와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서울대 교수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민주당 조순 후보, 그리고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4선에 직전에 치러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6.4%의 지지율로 4위를 했던 저력의 박찬종 후보가 맞붙는 3자 대결이 되었다.

최초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렸던 박찬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는 조순 후보가 42.35%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정원식 후보는 20%를 겨우 넘는 지지율로 3위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원식 후보와 박찬종 후보의 지지세가 나뉘게 되면서 조순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됐으며 이를 계기로 김대중 총재의 정계 복귀로



민선1기 1995년 정원식, 조순, 박찬종 후보 선거 포스터



민선5기 보선 2011년 10월 나경원, 배일도, 박원순 후보 선거 포스터



민선6기 2014년 정몽준, 박원순, 정태홍, 홍정 후보 선거 포스터



민선7기 보궐선거 2018년 10월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후보 선거 포스터

1995년 민선1기 '총리' 정원식 후보, 조순에 패배 4기 오세훈 후보, 61%로 역대 最高 득표율로 당선 2018년 박원순·김문수·안철수 후보 3파전 차승리

이어지게 되었다.

◆민선 2기(1998. 7. 1 ~ 2002. 6. 30)

3년 뒤 치러진 제2회 전국 지방자치선거에서는 3선 국회의원이자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관선 서울시장까지 역임한 한나라당 최병렬 후보와 전라남도 도지사 3번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새정치국민회의 고건 후보가 맞붙었다.

두 명의 정치 거물이 맞붙었던 선거에서 결과는 고건 후보가 53.46%의 지지를 얻어 43.99%의 지지를 받은 최병렬 후보를 약 10% 가까운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민선 3기(2002. 7. 1 ~ 2006. 6. 30)

2002년 한일월드컵 조별 예선이 한참 진행되던 6월 13일(다음날이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인 vs 포르투갈 전)에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선거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은 45.8%로 1~7회 선거 중에서 제일 낮았다.

◆민선 4기(2006. 7. 1 ~ 2010. 6. 30)

2006년에 치러진 민선 4기 서울시장 선거

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변호사이자 16대 국회의원 지낸 오세훈 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며 열린우리당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 후보가 공천을 받아 격돌했다.

결과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61.05%의 지지율을 얻어 27.31% 지지율에 그친 강금실 후보를 더블스코어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오세훈 후보가 기록한 61.05% 득표율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민선 5기(2010. 7. 1 ~ 2011. 8. 26)

2010년에 치러진 제5대 전국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과 초대 여성부 장관과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뒤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대결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뚜껑을 열고 보니 선거전은 초반빙으로 연출됐으며 최종 결과 47.43%의 지지율을 얻은 오세훈 후보가 46.83%의 지지율을 얻은 한명숙 후보를 0.6%p 26,412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민선 5기 보궐(2011. 10. 27 ~ 2014. 6. 30)

2011년 8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투표를 미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그해 10월 26일 치러진 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재선 국회의원의 나경원 후보와 변호사이자 시민사회운동가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의 대결이 됐다.

선거 결과는 사실상 야당+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받은 박원순 후보가 53.40%의 지지율을 얻어 46.21%의 지지율을 기록한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무소속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은 이번선거가 최초였다.

◆민선 6기(제2014. 7. 1 ~ 2018. 6. 30)

2014년에 치러진 민선 6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7선 국회의원이자 현대중공업지주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후보가 대결했다. 결과는 박원순 시장이 56.12%의 지지율을 얻어 낙승하게 되었으며 정몽준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이래 처음으로 낙선하는 아픔을 겪게됐다.

◆민선 7기(2018. 7. 1 ~ 2020. 7. 9)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최초로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그리고 직전 대선에서 패배 후 바른미래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안철수 후보의 3자 대결로 치러졌다.

3자 대결은 95년에 치러진 제1회 선거 이후 23년만이었으나 결과는 심경계도 더불어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52.79%의 지지율을 얻어 23.34%의 지지율을 얻은 김문수 후보와 19.55%의 지지율을 기록한 안철수 후보를 여유 있게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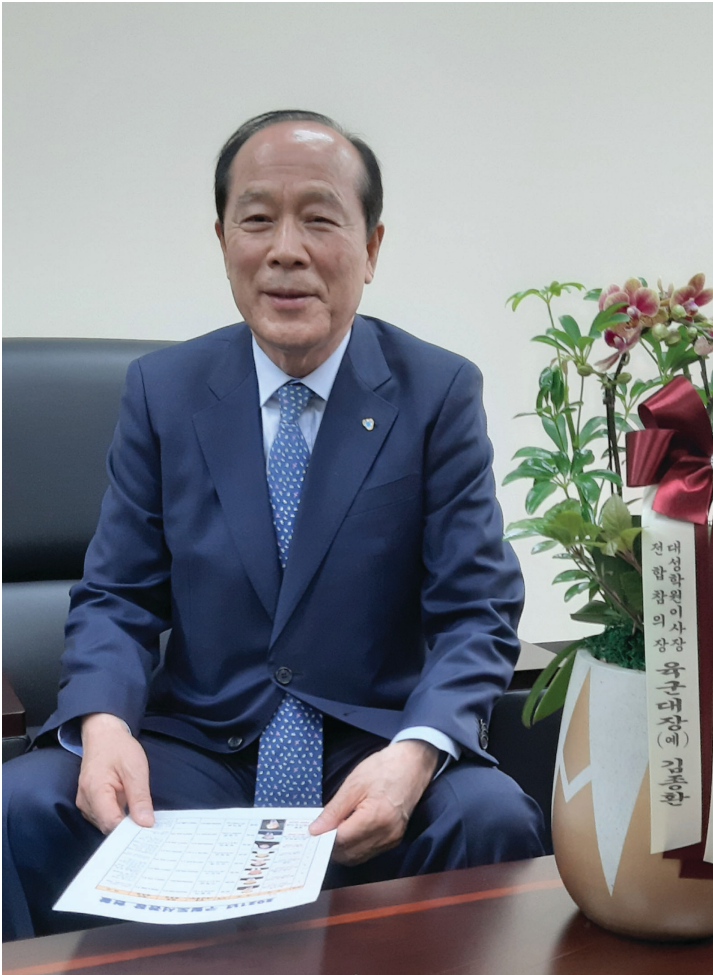
◆민선 7대 보궐(2021. 4. 8~2022. 6. 30)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치러질 보궐선거는 오는 4월 7일(수)에 치러진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 보지 않은 이상 장담을 할 수가 없다. 비록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할 만큼 짧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울시장 선거만큼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라면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길 바란다. <한민수 기자>

“구로 향토문화·예술문화 주민 참여 문 넓히겠다”

이계명 신임 제5대 구로문화원장 인/터/뷰

지난 10일 제5대 구로문화원장으로 취임을 한 이계명 신임 원장(75)는 취임 소감으로 “지역 문화의 획일화, 서열화에 따른 지역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 소실을 막고, 지역 문화의 다원적 균형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증대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원장실에서 이계명 신임 원장을 만났다.



□문화원장 취임을 축하 드린다. 구민께 한 말씀을.

-우선 구로구민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한다. 제5대 문화원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작으나마 구로구는 아직도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완전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실제로 구로구에 와 보면 공단의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 공단의 이미지를 완전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문화도시’ 구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누구나 와 보고 싶어하는 선진문화가 꽃을 피우는 화단 역할을 하는 구로문화원이 되게 만들겠다.

□현재 문화원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화원의 본래 기능은 지역의

고유 문화를 정착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외부에 널리 알리는 데 있다. 나라도 대사관에서 하는 역할과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것처럼 지역 문화원도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민간차원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구로문화원은 장기 발전계획의 부재로 2005년 설립 이후 별다른 발전이 없는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구로문화원의 주요한 사업인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전승하고 향토사의 조사와 연구 및 사료 수집 보존 관련사업은 지역 여건상 추진이 곤란하다. 문화예술 강좌와 문화행사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문화원 본래 설립 목적과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화예술 강좌의 경우 백화점 나열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부재로 청소년들이 문화원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화원장으로 앞으로 포부는?

-문화예술 강좌와 문화행사 사업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대중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세대별 문화적 편증을 해소 시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동 자치회관과 중복되거나 지역주민의 호응이 없는 문화예술 강좌 및 문화행사는 과감하게 폐지해 인력 및 재원을 절감하겠다.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시키고, 향토문화·문화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

재정확충 방안을 수립하고, 향토사 박물관, 시청각 자료실을 충

원하여, 구로문화원이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구로구 향토사 자료조사 및 지역 고유문화 계발, 보존 등의 사업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만들 계획이다.

한편 신임 이계명 원장은 구로문화원이 창립된 지난 2015년부터 초대 이사를 시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문화원의 이사직과 부원장직을 맡아왔다.

또한 이계명 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동구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2007년부터 구로·금천구새마을금고이사장 협의회장을 현재까지 맡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구로구협의 회장(제14, 15, 16, 17기)을 지냈으며 현재는 구로구협의회 상임고문이다. 지난 2010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10일 오후 2시 오류문화센터 2층 오류아트홀에서 각계 인사와 문화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계명 제5대 구로문화원장 취임식 열려

10일 오후 오류아트홀서 각계 인사 50여명 참석

구로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10일 오후 2시 오류문화센터 2층 오류아트홀에서 각계 인사와 문화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속에 열렸다.

유영직 문화원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이-취임식은 국민의례, 문화비전 선언서 낭독, 내빈소개, 퇴임하는 4대 최문식 원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로패(이성 구청장

전수)와 이성 구로구청장 공로패, 구로문화예술단체장, 구로문화원장 등의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어 4대 최문식 문화원장 이임사, 5대 이계명 신임원장 취임사가 이어졌고, 뒤이어 이성 구청장, 박동용 구로구의회의장, 김재식 국민의힘 구로갑당협위원장-김용태 구로을당협위원장의 축사와 내빈 단체 기념촬영 후 행사를 마쳤다.

<채홍길 기자>



제5대 이계명 구로문화원장 취임



제5대 이계명 구로문화원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로 곳곳 '봄꽃의 향연' 펼쳐진다

안양천·도림천·목감천 등 하천변 초화단지 11곳 꽃길 조성

유채꽃·백일홍·페튜니아·라벤더 등 9종 식재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안양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꽃길 을 조성한다. 구는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하천변에 봄꽃 종자를 파종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개화시기에 앞서 4월 중순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로구 곳곳에서 봄꽃의 향연 이 펼쳐진다!"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안양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꽃길'을 조성

인 개화시기에 앞서 4월 중순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심는 꽃은 유채꽃, 백일홍, 산파체스, 페튜니아, 땃사리, 설악초, 라벤더, 꽃양귀비, 수레국화 등 9종이다.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품종으로 선정했다.

구로구는 안양천 생태초화원을 비롯해 총 11곳의 초화단지(총면적 3만2400㎡)를 대상으로 땅고르기, 파종, 식재 작업을 실시한다.

또 구청, 구로역, 관내 주요도로변 등 30여곳의 화단과 화분에도 메리골드, 제라늄, 수국 등을 새로 심는다.

작업 후 남은 씨앗은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해 마을 곳곳에도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수영 녹색도시과장은 "각양각색의 봄꽃을 감상하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시절은 여름이다. 종년은 가을이고 노년은 겨울로 비유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바라보며 생각하는 마음까지 같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물 잔을 본다 치자. 목이 마르면 물잔으로 보이겠지만, 술이 마시고 싶으면 술잔으로 보이고,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잔으로 보일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수확을 한다. 씨앗을 뿌리는 마음은 희망

사물을 바라보는 눈만 환경과 개성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봄처럼 사는 사람과 가을처럼 사는 사람 ①

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굵고 짧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던, 삶을 어떤 식으로 영위를 하든 세월은 흐른다는 것이다.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를 하면 청소년시절은 봄이고, 젊은

이다. 어떤 씨앗을 뿌리더라도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거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길 기원하는 희망을 가진다. 가을에는 여름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수확을 하는 일만 남았다.

여름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 가을에 웃음이 나고, 여름에 게으름을 피웠으면 후회의 한숨이 나올 것이다. <본지 회장>

구로구의회 최숙자·김영곤 의원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

구로구의회 최숙자·김영곤 의원이 지난 3월 12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자치구회의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지방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구로구의회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조영훈 회장이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최숙자 의원은 제8대 전반기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불편 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등 소통에 충실한 의정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영곤 의원은 제8대 전반기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소감을 통해 최숙자 의원은



최숙자 의원

김영곤 의원

의정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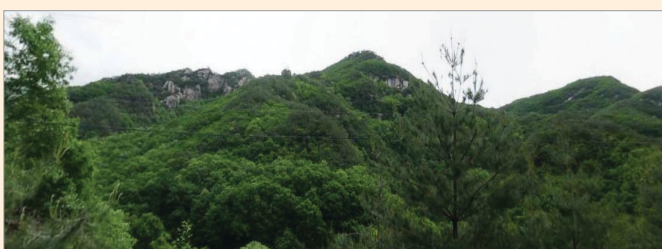
김영곤 의원도 "오늘의 수상은 더욱 봉사하려는 의미로 알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정

"수상자로 선정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정 곳곳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책제안을 통해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이제 산·임야가 대세이다

임야 1평 3,000원... 서울 땅 1평이면 1만평을 산다!



- *산나물·산약초를 키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 *장뇌삼 씨를 뿌려 보지 않겠습니까?

남의 산(임야)에서 산나물·산약초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소나무 한그루에 500만원부터 3억원까지 거래가 되는 시대입니다.
- 쓸모없는 나무는 베고, 쓸모있는 나무를 가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가족 캠핑장을 조성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전 세계는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 강제로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산림청은 매년 전국 사유지 임야를 2천여만평씩 국유림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임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010-9096-1144

'구로역 증축·개량사업과 보행접근성 향상 간담회' 개최

윤건영 의원, 국토부·코레일·구로구 '출구 증설' 동의 이끌어

윤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을)은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에서 '구로역 증축·개량사업과 보행접근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구로역 증축·개량사업의 설계를 맡은 근정설계사무소의 설계안 보고를 시작으로 구로역 출구증설에 대한 진행 경과 설명, 주민들의 의견 개진과 사업 관계자들의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윤건영 의원이 '구로역 신축 및 개량사업'을 공약 1호로 선정한 이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그동안의 성과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구로역 신축 및 개량사업은 윤건영 의원이 지난 총선 선거운동 당시 주민들로부터 구로역 개선과 출구 신설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공약으로 반영한 사업이다. 그동안 윤건영 의원은 국비 사업인 구로역 개량 및 증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구로역 출구증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부측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미온적이던 구로구청의 동의 역시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구로역의 출구를 증설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물론 출구 증설 과정에서 필요한 철로변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냈다는 평가이다. 또한 코레일은 출구증설에 따른 개찰구와 역내 엘리베이터 등 필요 시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민주당이 확보한 10억원의 특별교부금중 3억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먼저 사용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7억원은 당장 실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공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구로역 출구 신설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제시와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구로역은 일일 이용객이 4만 여명에 달하는 역사지만 출구가 3개뿐이라 출퇴근 시간대에는 항상 발 디딜 틈이 없다"라며 "특히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향후 구로동 및 신도림동에 재개발이 진행되어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역을 설계하여야 한다"며 "신설되는 출구도 신도림동 방면으로만 설치된다면 구로5동 방면 주민들은 구로역에 대한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아 고충은 계속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건영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구로5동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에서 강당에서 '구로역 증축·개량사업과 보행접근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서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구로역 출구 문제로 인한 주민분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해서 구로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로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낡고 불편한 구로역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최대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구로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안전하고 쾌적한 구로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윤건영 국회의원 외, 국토부 정선우 철도시설안전과장, 한국철도공사 이상진 건축시설처장, 김태희 시설개량팀장, 근정건축사사무소 이정근이사, 이호대 서울시의원, 장인홍 서울시의원, 구로구의회 조미향, 박철성, 김철수, 노경숙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채홍길 기자>

김인제 시의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본 조례안' 제정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보호-육성 전방위 지원체계 마련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위 위원장)이 여·야 60명 의원의 마음을 모아 올해 서울시의회 첫 조례로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됐다. 이에 따라 김인제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초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과 함께 사업장 환경 개선, 직무능력

향상, 국제화 촉진, 재난피해 지원, 소상공인 공제, 조세 감면 등 창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반영했다.

김인제 의원은 "내수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배경을 말했다. <김유권 기자>

현재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조례들이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영업자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규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

서울남부검·경, 부동산투기수사 '핫라인' 구축

서울남부지검과 남부지역 5개 경찰서가 부동산 투기수사 단속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구로·강서·영등포·금천·양천 등 5개 경찰서는 지난 15일 검경 기관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수사 전담 전담부서와 경찰 전담수사팀 사이 핫라인을 개설해 사건 발생, 영장 신청 단계부터 긴밀하게 공조하

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기관장급, 실무자급 협력체계를 만들고 검찰 내 지정될 수사협력 전담부서를 통해 중요사건 초동 단계부터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지역 단위 검찰과 경찰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홍길 기자>

봄맞이 활짝 핀 구로 '나눔의 꽃'

봄을 맞아 구로구에 나눔의 꽃이 피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달 16일 태평로건설(주)(대표 류지연)의 후원을 받아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에 공기살균기 4대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참튼병원원 김성국 회장, 이수현 원장, 이성 구청장, 문진환 이사장.

동별로도 나눔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달 24일 구로신용협동조합(이사장 신기혁)은 구로5동 저소득층 50가구와 구로2~4동·오류2동·수궁동·신도림동·항동 저소득층 30가구에 백미 10kg씩을 전했다.

같은 날 오류1동여성자율방범대(대장 이춘자)는 오류1동장학회에 30만원을 지원했다.

28일 고척2동 차오름태권도(관장 박한희)는 아이들이 직접 모은

라면 1,100봉지를 저소득 주민 50명에게 전달했다. 단체와 기업들도 나눔에 동참했다.

이달 15일 참튼병원(원장 이수현), (사)더불어함께 새희망(이사장 문진환)이 각 500만원,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남교회(담임 목사 윤병수)가 500ml 생수 2,060개, 4일 한국전력공사 구로구전지사(지사장 금병선)가 400만원을 후원했다. <김유권기자>

구로경찰서 '서울청 성과 평가' 최고 등급 받아

구로경찰서(서장 임경우)가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상위 20%)등급을 받았다.



구로경찰서가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상위 20%)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구로경찰서 전경)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로경찰서를 비롯, 서초·강남·광진·영등포·

송파서 등 6곳은 최고 점수인 S(상위 20%)에 선정됐다. 뒤이어 강서와 양천서 등 13곳이 A등급이었고, 방배·종암·관악 등 경찰서

는 최하 등급인 C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매년 평가 지표인 치안종합성과(70%)와 고객만족도(20%), 인권향상평가(10%) 등을 종합점수로 환산해 S~C 등급을 선정했다.

구로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2018~2019년엔 A등급에 이어 3년만에 다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해당 평가가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액 산정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성과평가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홍길 기자>

한밤 항동 구로자원순환센터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지하1층 목재 폐기물 등 불타



지난 13일 밤 11시45분 구로자원순환센터 대형 목재폐기물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진은 밖에서 본 화재 당시 외부 모습(왼쪽)과 불에 타버린 내부 모습(오른쪽))

한밤 구로자원순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13일 소방당국과 시설관계자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밤 11시 45분쯤 구로구 항동 구로자원순환센터에서 쌓인 대형 목재폐기물 더미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소방관, 경찰 등 199명과 차량 30여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4시간 40분가량 계속되다 13일 새벽 4시 24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현장 작업자 13명이 급히 대피하고 2명은 연기를 마셨으나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고 귀가했다. 구로소방서 관계자는 "시설 지하 1층 가구 및 소파 등 대형폐기물 집하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와 연기를 모두 제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15일 실시된 소방당국과 국과수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2~3주 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보상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장과 김홍식 엠엔테크 위탁업체 현장소장은 16일 오후 현장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로 대형 목재 생활폐기물이 탔다"고 말하고 "냄새 완전 제거와 소실된 전기시설 등 완전 복구엔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화재가 난 구로자원순환센터는 구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 두고 압축·선별 과정을 거치는 적환장이다.

이 시설은 구로구가 지난 2019년 7월 총 527억 7900만원을 들여 구로구 서해안로 2147(항동 58-1) 부지면적 13,073㎡(지상·공원, 시소유 / 지하·폐기물처리시설, 구소유)에 시설 면적 14,558㎡ 지하 1~2층에 ▲생활폐기물 압축적환 하루 160톤 ▲음식물폐기물 적환 120톤 ▲재활용품 선별 40톤 ▲대형폐기물 적환 25톤을 처리하고 있다. 작업은 (주)엠엔테크, (주)한솔이엠이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아이스팩 재활용' 소상공인 돕는다

16개 동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수거 세척·소독·재포장 거쳐 소상공인에 무료로 제공

"환경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돕고!"

구로구가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택배주문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급증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에 환경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도 돕기 위해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은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로 제작돼 자연 분해가 어렵고 잘 소각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아이스팩을 배출할 수 있도록 16개 동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사진)'을 최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오염, 훼손되지 않은 펠타입의 아이스팩을 수거한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구로삶터지역지활센터로 전달돼 세척, 소독, 재포장 작업을 거쳐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아이스팩 사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청소행정과(860-2376)로 신청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4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백신 접종시작

요양병원 65세 이상 입소자·종사자 이달 4주째부터

4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등 1200만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2분기 시행계획 추진 목표를 △상반기 총 1200만명 대상 1차 접종 △고위험군 보호 △노인 접종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 등 5가지로 설정했다.

추진단은 대상군을 총 6개군으로 분류하고 대상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시기와 물량을 고려해 대상자별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방법을 정했다.

만 65세부터 74세까지 노인에 대한 접종은 6월 중 시작한다. 아

대상별 접종계획	대상	규모	시작 시기
총 112만5400명	노인(65세 이상)	152만8000	4월 1주
	장래인(신생아, 후각보조)	62만3000	4월 2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만7000	4월 3주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400	4월 3주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1만8000	4월 4주
	교정시설 등 종사자	2만	4월 2주
	장래인 돌봄 종사자	10만5000	6월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27만8000	6월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어르신	364만	4월 1주
850만3000	65~74세 어르신	494만3000	5~6월
학교 및 돌봄 공간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42만8000	4월 1주
55만5000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만5000	4월 1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	49만1000	6월
만성질환자 (64세 이상)	만성신장질환(투석환자)	9만2000	6월
106만4000	만성중증호흡기질환	1만2000	6월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38만5000	6월
보건의료인	사회복지인력(경찰·해경·소방·군인 등)	80만2000	6월
시행할 수 인력 등	항공승무원	2만7000	5월
1218만4000			

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 전국 1만곳 이상 운영예정인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최근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진행됨에 따라 4월 중 특수교육·장애아보육 인력 5만1000명, 유치원·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1만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김유권 기자>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1,104명

18일 현재 일주일새 30여명 늘어... 누적 사망자 10명

서울 확진자 3만384명-사망 412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로관내 확진자수가 증가세가 이어 지고 있다.

18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구로동 0의원 관련 2명 등 1,104명으로 일주일새 30여명이 늘었다.

이날 현재 사망은 지난주와 같이 10명이며 1,037명이 완치 퇴원, 55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286명, 해외입국자 438명 등 모두 724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오류동 해적집 관련

41명,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5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583명, 해외 입국 7명, 조사중(기타) 35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18일 현재 모두 3만384명으로 사망자는 412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은 1,713명 ▲송파구가

1,677명 ▲관악구 1,418명 ▲강남구 1,399명 ▲노원구 1,337명 ▲성북구 1,305명 ▲은평구 1,281명 ▲중랑구 1,272명 ▲동작구 1,253명 ▲서초구 1,159명 ▲양천구 1,151명 ▲영등포구 1,130명 ▲구로구 1,104명 ▲동대문구 1,093명 ▲강동구 1,056명으로 15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마포구 998명 ▲도봉구 959명 ▲광진구 902명 ▲용산구 834명 ▲강북구 797명 ▲서대문구 790명 ▲성동구 777명 ▲종로구 588명 ▲금천구 479명 ▲중구 479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관내 코로나19 백신 5,188명 접종

18일 현재 접종률 61.8%...서울시 평균도 61.8%

구로구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후 17일 현재까지 1차 대상자 8,394명중 5,188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61.8%를 기록중이다. 서울시 평균 접종률도 61.8%다.

구로구는 3월까지 코로나 고위험군인 코로나19환자 진료 의료기

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34개소와 의료기관과 보건소 종사자, 구급대원 등 8,394명의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6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69,000명을 우선 접종하고 이어서 7월부터는 일반 주민(18세~64세)의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홍길 기자>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에 서동규씨 선출

2021년 제1차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11일 오후 2시 구청 강당에서 회원 100명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에 서동규(사진·46세·개봉3동)씨를, 부위원장에 심철(56세·개봉2동)을 선출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서동규 위원장은 제1기 협치회의위원과 공익활동추진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채홍길 기자>

‘맥가이버봉사단’ 밀반찬 만들·나눔봉사 8주년

2009년 ‘집수리봉사단’으로 발족, 환경개선에 힘써

지난 3월 8일 금천구 소재 티뷰크 종합사회복지재단 조리실에서 구로구 맥가이버봉사단(단장 조재화)의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 8주년 기념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 두기로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가 직접조리·포장에서 대체식품 전달로 바뀌고, 1년여 만에 다시 직접조리·포장으로 돌아오는 시작 일이기도 했다.

2009년 구로구 집수리봉사단으로 발족한 구로구 맥가이버 봉사단은 주거환경 개선 봉사·나들이 봉사·어르신들 식사 접대 등 여러 부문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중 2013년 티뷰크 종합사회복지재단과의 봉사협약으로 인한 자금·물품·인적지원으로 기존의 구로구 맥가이버 봉사단 단독으로 진행했던 주거환경개선 봉사보다 질적으로 나아졌으며, 횡수도 늘었고,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도 시작하게 됐다.

이번 구로구 맥가이버 봉사단의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구로구 관계부처와 협의 후 진행되었으며, 마스크 쓰기·발열 체크·손 소독·거리 두기 등 안전



지난 3월 8일 티뷰크 종합사회복지재단 조리실에서 구로구 맥가이버봉사단의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 8주년 기념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사진 왼쪽 첫번째 조재화 단장, 두번째 서복례 총무>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조재화 단장은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가 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지만, 1년여간 코로나 19로 인한 대체식품 전달로 밀반찬 나눔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질이나 양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직접조리·포장으로 다시 진행하려 한다”고 말한다.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가 끝나고 식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맥가이버 봉사단 조재화 단장이 준비한 떡과 공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해 준 8주년 기념 케이크·샌드위치와 김

밥 도시락·모듬 과일 나눔으로 대신했다.

서복례 총무는 “우선 밀반찬 수혜자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작년 7주년은 코로나19로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가 대체식품으로 진행되면서 기념하지 못해서 아쉬웠는

데, 8주년은 조촐하게나마 기념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구로구 맥가이버 봉사단 단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고 말한다.

구로구 맥가이버봉사단은 3월 12일부터 주거환경개선 봉사도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밀반찬 만들·나눔 봉사든 주거환경 개선 봉사든 기다리시는 수혜자분들은 생각하면 봉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구로구 맥가이버 봉사단 단원들의 생각인 것 같다.

<이재환 구로4동 시민기자>

도서출판 도훈 계간 ‘시마’ 제7호 봄호 출간

도서출판 도훈(대표 이도훈)에서는 계간 도훈 제7호 봄호가 발행됐다.<사진>

봄호에서는 미희와 선하의 시와 사진 풍경소리, 박해람 시인의 칼로 새긴 시, 겨울 신작시로 김산

의 참깨 등, 조향순 시인의 고향이와 산다, 시마의 고안나의 지심도 사랑가 등, 시 읽는 계절 윤성택의 세상 외음부의 일, 이린아의 압호를 풀 땀 노래를 불러요, 강지혜등의 시마 시화전이 실렸다.



또 김선향의 시집속 작은 시집, 유수진의 문학기행, 조성찬의 여행인문학, 이병철의 시마 논평 겨울을 이겨낸 시가 게재됐다. <김유권 기자>

초대시

봄 날

시인 한상림



노란 저고리에 초록 치마를 입고
영정사진을 찍는 할머니

어멍,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사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어멍,
어멍은 죽어서 뭐가 되고 싶은데요

나비,
왜 하필 나비요?

꽃잎에 앉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 곱다, 아이 곱다
하면서 바라볼 테니까

뒷산 유채밭 꽃 물살에는
할멍의 주름살도
노랑나비 날갯짓에 흔들리는 바람도
하나같이 살가운 오후

-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 시집 『따뜻한 엄표』, 『중이 물고기』
- 칼럼집 『섬으로 사는 사람들』
- 한국문인협회, 국제펜 한국본부, 강동문인협회 회원.
- 대통령 훈장,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강동구민대상(사회발전 개인부문)
- 해피우먼, 일요주간신문, 서대문자치신문 칼럼 게재 중.

금담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토지·건물·공장·아파트·주택 / 매매·임대 상담환영

T. 02-2068-09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1길 30

내일을 꿈꾸는

사장님께,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을 하다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시죠? 창업준비부터 자금지원, 사업어려움 해결, 경쟁력 강화, 업종전환, 폐업 및 재기 지원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영업지원센터에서 누리세요!



창업컨설팅



창업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창업 후 안정화 시기까지 1:1 창업컨설팅과 함께하세요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1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현장체험



실제 사업장에서 성공한 사장님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사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멘토-멘티 매칭 후 사업장에서 점포 운영 체험

자영업클리닉



전문가가 사업장을 찾아가 SNS마케팅부터 세무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진단 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컨설팅 제공

동행프로젝트



성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부터 문제해결까지 단계별 컨설팅과 필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6개월간 전문가 협업을 통한 컨설팅과 비용 지원

자영업협업화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여 협업체를 구성하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협업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90% 이내 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정리를 검토중인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사업정리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폐업과 재기를 지원합니다.

*폐업 시 절세방법, 취업 컨설팅, 임대료 등 지원